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

화재예방과 보상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전문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된지 33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글 | 변상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지난 1970년대 초 대연각 호텔과 서울시민회관에서 연이어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화재예방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 보험회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화재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여 방재활동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화재안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 주고 손해보험회사는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협회를 통하여 '손해예방'이라는 사회 안전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560만 명이었으나, 소방 관련 시설은 소방서 4개와 소방파출소 24개가 전부였다. 소방장비도 15m 및 31m 고가 사다리차 몇 대가 고작이었던 것도 협회라는 민간방재기관을 설립토록 한 이유였다.

당시 협회가 방재활동을 맡은 특수건물의 숫자는 4층 이상을 포함하여 6천여 건으로, 재산 및 인명손실의 대부분이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현명하고도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3년 동안 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방재 시험연구원을 통한 시험·연구, 외국 선진 방재기술의 국내 보급, 다양한 국민계몽활동을 통해 불모지와 같던 우리나라 화재안전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제4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민간기관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재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인구의 증가, 지하공간의 활용 증대 및 대형 고층건물의 증가 등 고도 산업사회로 환경이 급변하면서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등 위험의 형태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두 사람의 방임이나 실수가 많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올러, 지구의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 조 원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매미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매사 안전이 주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정부에서도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한 것이다.

지난 33년간 화재안전 분야에서 방재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온 협회가 변화된 소방방재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명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방재업무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니즈(Needs)’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폭발, 붕괴, 풍수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위험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 새로운 위험분야의 예방활동을 위한 자기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풍수해 위험관리 차원에서 손실예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 33년 동안 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방방재 분야에서 더욱 우리나라 방재기술의 Think Tank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조사연구에 대한 투자와 협회에 축적된 종합 방재지식정보의 DB화를 통한 정보 서비스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방재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방재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난관리 대책을 세우는 방재기술 인프라로서의 공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소방정책 분야의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33년간 우리나라 소방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회의 역할이 새삼 대두되어 짧은 소신이나마 피력하였다. 앞으로도 협회가 소방방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

